

지역 소식통

정부보급종벼 증자  
부안군, 18일까지 접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농업인들이 내년에 사용할 정부보급종벼 증자를 오는 18일까지 읍면농업소특상담소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보급종이란 생산단계별로 철저히 품질 관리된 우량종자로 발아율과 순도가 높고 품종의 유전적 특성을 잘 지니고 있으며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어 고품질의 쌀 수확이 가능하다.

우리지역의 보급종은 8품종 236톤으로 신동진벼 169톤, 동진찰 38톤, 미품 1톤, 해당벼 11톤, 해풍 4톤, 수광 10톤, 윤광 1톤 등이다.

신청한 종자는 2021년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가가 거주하는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보급종 신청·공급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 063-580-3857에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상수도 운영관리 평가  
정읍시 'A등급' 달성

정읍시는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19년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수준의 운영관리를 달성하는 기업을 토론했다.

일반수도사업자 운영관리 실태평가는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수돗물 공급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전국 16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실시하는 평가다. 먹는 물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 예방적 유지·관리에 힘쓴 결과 해당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관로에서 땅으로 누수되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인 유수율 평가에서 전북지역 최고인 약 82%를 달성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높을고창 친환경 쌀' 출시

## 고창군, 수박·멜론 이어 소비자 입맛 공략 본격 최고품질 '수광벼' 품종... '프리미엄 쌀'로 육성

고창군이 14일 프리미엄 농특산품 브랜드인 '높을고창' 시리즈 3탄으로 '높을고창 친환경 쌀' 출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공략한다.

'높을고창' 브랜드는 프리미엄급 농산물에만 부착되는 브랜드로 군은 지난 수박, 멜론에 이어 이번 친환경 쌀을 출시했다.

쌀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밥쌀용 최고품질인 '수광벼' 품종이다.

밥맛을 결정짓는 아밀로스 및 단백질 함유량이 낮아 찰기가 좋으며 밥맛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높을고창' 쌀은 친환경 인증, 특품의 출하등급, 단백질 함량 6%이하의 우수한 품질기준과 전용 저온창고 보관, 출하직전 1주일 이내에 도정한 것만을

유통해 신선도 유지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그간 고창에서는 쌀을 재배하여 왔으나, 제대로된 브랜드의 부재로 농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출시되는 '높을고창 친환경 쌀'은 전용품종, 고품질 기준적용 출하 등을 통해 전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높을고창' 쌀은 온라인 쇼핑몰인 C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예정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제1기 시민정원사들이 지난 12일 가로수 동사를 방지하고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가로수 예쁜 나무 옷 입히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알록달록 '웃 입은 겨울 정원'

### 정읍시, 제1기 시민정원사들 나무 옷 입히기 봉사활동

정읍시 제1기 시민정원사들은 지난 12일 가로수 동사를 방지하고 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 가로수 예쁜 나무 옷 입히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시민정원사들은 지난 4월부터 11월 까지 나무 옷을 입힐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만나 나무의 규격을 재며 직접 디자인해 뜨개옷을 만들었다. 특히 다양한 캐릭터와 꽃무늬, 무지개 등의 무늬를 넣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했다.

뜨개질로 만든 나무 옷은 겨울철 한파와 병충해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무늬와 색깔로 도시 길거리 미관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6개월간 직접 뜨개질로 나무 옷을 만든 정원사들은 정읍시공원과 연지

아트홀 수성교차로 교통섬 일대의 가로수 7주에 직접 나무 옷을 입혔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추운 겨울 뜨개옷으로 화사해진 나무들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다 함께 행복한 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정원사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식물과 정원 관련 교육을 8시간(약 5개월) 동안 이수하고 수료한 이들로 2019년에 25명, 2020년에 40명이 배출됐다.

한 해 동안 공공기관 전직직업 봉사활동과 소규모 정원조성관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부안군,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 내년 사업비 8억3300만원 확보 243동 대상... 이달 말까지 신청

부안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비로 올해 대비 약 16% 증가한 8억 3300만원을 확보했으며 총 243동(지방계량 28동 포함)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경우 344만원, 창고 등 50㎡ 이하 비주택의 경우 172만원까지 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지방계량 시 최대 610만원을 지원한다.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내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부안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2기분 자동차세 37억5000만원 부과

정읍시가 올해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23,734건에 대해 37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정읍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 및 면세액 10만원 이하(6월 정기분 전액 부과)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CD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

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인터넷뱅킹)와 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6월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차세와 위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2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 납부 번호를 입금계좌번호 활용해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다.

타 은행 납부나 업무시간 외 납부 시 부담해야 했던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납세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ATM/CD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부과팀(☎063-539-5264)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12월 31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예상되기에 빠른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전국공무직노조 정읍시지부 정기총회

### 유공자 표창 · 회계감사 보고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지부장 이권로)는 지난 11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조상중 시의회의장,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기념식과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기념식에서는 모범·유공조합원 6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정기총회는 2020년 회계감사 보고와 결산보고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제4기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 임원선거도 치러졌다. 지부장·사무처장 동반 출마 찬반 투표에서는 88%의 높은 득표율로 이

권로 지부장과 서경원 사무처장이 당선됐다.

이권로 지부장은 "올 한해 부지런히 달려오신 조합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협력한다면 조합원의 행복은 물론 정읍시 발전에 힘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